



비엘티 식품포장기 로파호

“국물 안 새는 포장기, 주방필수품 만든다”

국내외 포장 특허만 17개
소비전력 4분의 1로 줄여
美 유통·홈쇼핑서 ‘러브콜’

설령탕 두 그릇을 포장 주문했다. 일회용 밀폐용기에 담아준다. 국물 등 내용물이 흐르지 않도록 비닐이 덮여 있다. 완전 밀폐돼 뒤집어도 내용물이 새지 않는다. 포장을 뜯기도 어렵다. 전용 칼 등을 이용해 비닐을 찢어야 한다. 배달이나 포장 음식 주문이 늘어나면서 많이 사용되는 것이 식품포장기다. 포장 범위도 떡볶이부터 설령탕, 죽밥, 파스타까지 다양하다.

비엘티가 개발한 ‘로파호’ 식품포장기는 기존 식품포장기의 단점을 개선한 제품이다. 전용 ‘이지필’ 필름과 저온 방식 포장으로 한번에 비닐을 벗길 수 있다. 임용수 비엘티 대표는 “로파호는 음식전문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도 쉽게 쓸 수 있도록 만든 진공·식품포장기”라며 “김치냉장고처럼 새로운 식탁 문화를 만들어 내는 제품으로 자리 잡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간편·진공·용기 등 간단 포장
로파호는 가로로 길쭉한 형태다. 첫 인상은 최신 전자기기에 가깝다. 전면부에는 전원 버튼과 세 개의 기능 버튼을 달았다. 세 개의 버튼은 각각 간편포장(핸드 실러)·진공포장·용기포장으로 기능이



임용수 비엘티 대표가 식품포장기 ‘로파호’의 기능을 설명하고 있다. 이민하 기자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은 이메일 (art@hankyung.com)로 신청받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event.hankyung.com)를 참조하세요.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 △블랙큐브-국셀 (031)315-1300 △비엘티주식회사-식품포장기 Lofaho (042)671-9501 △대호아이엔티-스마트호신기 마미콜 (055)715-2233 △코엔-휴대용 에너지 저장장치 파워라이저 (031)476-1390

액체도 기기에 같이 빨려 들어가 진공포장을 할 수 없었다. 비엘티는 식품포장기와 필름 생산 등에 관련한 국내외 특허권 17개를 보유하고 있다.

◆3월부터 해외 시장 공략
비엘티는 다음달 미국 시카고에서 열리는 국제가정용품전시회(IHS)에 참가할 계획이다. 시카고 전시회에는 올해 바이어 2만30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임 대표는 “로파호는 이동 거리가 멀고 테이크아웃(포장) 문화에 익숙한 해외 시장에서 더 각광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 대표는 올해 매출 목표를 지난해 두 배 수준인 20억원으로 잡고 있다. 그는 “시카고 전시회에서 미국 유통업체, 홈쇼핑 바이어와 제품 시연 일정을 잡았다”고 말했다.

대전=이민하기자 minari@hankyung.com

다르다.

간편포장은 믹서기 등에 전용 밀폐 뚜껑을 붙인 뒤 진공상태로 만들 수 있는 기능이다. 진공상태에서 재료를 갈기 때문에 변질·부패를 줄일 수 있다. 진공기능은 전용팩을 이용해 음식을 장기 보관할 때 편리하다. 용기포장은 다양한 용기 크기에 따라 맞춰 쓸 수 있다.

로파호는 유지·관리 부담도 줄였다. 기존 식품포장기보다 소비전력을 4분의 1 수준(소비전력 250W)으로 낮췄다. 무게도 3.4kg으로 이동과 설치가 쉽다. 전기, 전자파, 환경호르몬 등에 대한 안전 인증도 받았다. 임 대표는 “제품 기획 단계부터 소비자가 최대한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능과 디자인을 단순화했다”고 설명했다.

◆“식문화 바꾸는 제품”
임 대표는 로파호가 식탁 문화를 바꾸는 혁신적인 제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치냉장고나 밀폐유리용기 등은 처음엔 낯설었지만 지금은 익숙하게 이용되면서 식생활 문화를 크게 바꿨다”며 “식품포장기도 이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1인 가구나 맞벌이 가정에서 더 유용하다. 음식을 진공팩이나 용기에 한 끼 단위로 나눠 담고 진공 상태로 냉동 보관할 수 있다. 소스·국물 등 액체류 음식의 진공 보관이 가능하다. 기존 식품포장기는

국내 첫 투자개방형 병원, 올해 문 연다

제주 녹지국제병원 6월 준공
피부와 찾는 中부유층 대상

특징	국내 첫 투자개방형 병원
규모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1만7679㎡(47병상)
진료과목	성형외과, 피부과, 가정의학과, 내과
투자비용	778억원
투자사	중국 위디(魏地)그룹
개원 시기	올해 하반기

자료:보건복지부

투자개방형 국제병원 설립이 허용된 지 15년 만에 국내 첫 병원이 제주도에 문을 연다.

중국 위디그룹이 778억원을 투자해 제주 서귀포시 토평동 제주헬스케어타운에 짓는 녹지국제병원이 오는 6월 준공된다.

병원이 문을 열면 국내 첫 투자개방형 국제병원이 된다. 투자개방형 국제병원은 외부 자본의 투자 및 배당이 가능하고 외국인 의사가 진료할 수 있는 병원이다. 이 병원을 찾는 환자는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녹지국제병원은 지하 1층-지상 3층, 47개 병상 규모 중소병원이다. 의사 9명, 간호사 28명 등 134명의 의료진이 성형외과와 피부과 가정의학과 내과 등 4개 진료 과목 환자를 진료한다. 전체 병상을 1인실로 구성해 성형 시술이나

건강검진 등을 받을 원하는 중국 부유층 환자를 주로 진료할 계획이다.

2015년 말 제주도를 통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계획서 승인을 받은 위디그룹은 지난해 병원 착공에 들어갔다. 착공 허가를 한 제주도는 올해 9월까지 최종 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에 따라 위디그룹이 개설 허가 신청을 하면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허가 여부를 판단한 뒤 원희룡 제주지사가 최종 결정을 한다.

의료법에 따라 국내 의료기관은 외부 자금을 투자받을 수 없다. 투자개방형 국제병원은 예외

다. 2002년 김대중 정부가 외국인 전용 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경제자유구역법을 제정하면서 투자개방형 국제병원 설립 근거가 마련됐다. 2006년 개설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에서 제주도로 확대됐다.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앞두고 투자개방형 국제병원 허용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 등은 투자개방형 병원 의료분배를 위해 투자개방형 병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민단체 등은 투자개방형 병원이 무분별하게 확대되면 의료공공성을 해칠 수 있다며 병원 개설을 반대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주 국제병원의 최종 허가권은 제주도에 있지만 의료법에 따라 타당하지 검토해 사업계획서를 승인하는 권한은 복지부에 있다”며 “2015년 복지부가 이미 승인했기 때문에 제주도의 판단에 따라 병원 개원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이진희기자 bluesky@hankyung.com

휘슬러, 한식 특화된 조리용품 선배



주방용품업체 휘슬러가 압력솥과 냄비로 구성된 ‘프리미엄 이다 컬렉션’(사진)을 출시했다. 한식 조리 특화된 기술과 디자인을 적용했으며 한국에서만 판매한다. 휘슬러의 트레이드마크인 반

원 모양의 ‘솔라’ 패턴을 재해석해 감각적으로 디자인했다. 압력솥은 4단계 압력조절 장치로 모든 종류의 찜 요리가 가능하다.

10분 만에 밥이 되는 등 조리 시간을 대폭 줄여 식재료의 영양소를 그대로 살렸다. 냄비엔 돌

형 뚜껑과 스팀함 기능을 탑재해 음식물이 끓어 넘치는 것을 막아준다.

하늘을 당신의 눈앞에...

지상 123층의 스카이라인뷰가 일상이 되는 특별한 삶-
시그니엘 레지던스, 이곳에서 오직 당신만을 위한 하늘이 열립니다



*이 홍보물에 기재된 사진, CG, 초상권, 그래픽, 서비스 등 이미지권은 고객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